

사회



공무원들 전용?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상무2동 주민센터 주차장. 이곳에 주차된 12대 승용차 중 7대가 공무원의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사무소 주차장은 공무원 차지

과태료 수십억 거둬 조성한 민원인 주차장 대부분 점령

광주시 각 자치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조성한 동(洞) 주민센터나 복지회관 내 '민원인 주차장'이 공무원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민원인 주차장은 각 구청이 주민들의 주차차위반 단속 과태료를 거둬 민원인과 근무자를 위해 조성했지만 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18일 광주시 서구·남구·북구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예산 50억5700만원의 주차장 특별예산을 투입, 동 주민센터·복지회관 등에 민원인 편의를 위한 7곳의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3곳은 추가 건

립할 예정이다. 구별로는 ▲서구 3곳(2곳 건립 예정) ▲남구 3곳(1곳 건립 예정) ▲북구 4곳 등이다.

그러나 이들 주차장 이용객 대다수가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지난 15일 오전 11시 상무2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주차면 수 21면)에 주차된 승용차 소유자 21명 중 12명에게 연락해 본 결과, 7명이 동 주민센터 직원이었다. 나머지 5명은 동 주민센터 인근 상가 주인이나 주차해놓고 귀가한 주민이었다. 이처럼 공무원들 상당수가 민원인 주차장을 차지하는 바람에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특히 땅값이 비싼 도심 한가운데 주차장을 조성하는 바람에 전체 예산 중 토지매입비가 70%를 넘어 가뜩이나 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흥3동 주민센터 민원인 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이 모두 2억6600만원이었는데, 토지매입비가 전체 예산의 71.8%인 1억9100만원이었다.

신안동 주민센터도 예산 4억5000만 원 중 79.5%인 3억2200만원이 토지매입비였다. 시민들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주차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모(33·서구 상무동)씨는 "값비싼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정작 민원인 동 주민센터를 찾을 때마다 번거로움을 기다리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주차장인지 의문스럽다"며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무원들이 전용하다 시피하는 주차장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민원인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a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시민들은 용감했다

60대, 광주 남구에서 초등학생 납치범 신고

광산구 아파트 경비원 격투 끝 강도 붙잡아

광주에서 시민들이 초등학생 납치범과 엘리베이터 강도를 잇따라 붙잡았다.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김모(61)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2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1년 A(8)양을 끌고 가려던 조모(48)씨를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김씨는 "배움터 지킴이" 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해 A양에게 접근하던 조씨를 발견,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남부경찰 소속 의경들에 도움을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까지 광주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해 현재 등·하굣길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또 같은 날 광산구에서는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 등 4명이 격투 끝에 강도를 붙잡았다. 송모(41)씨 등 4명은 지난 16일 오후 4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 B(여·34)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이모(34)씨를 붙잡았다. 당시 송씨 등은 B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약 500m 가량 뒤 쫓아갔으며, 흉기를 휘두르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씨와 격투를 벌인 끝에 검거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8시30분 청상실에서 이들 시민 5명에 대해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김씨 등 2명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58분께 순천시 행곡동 봉화터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장모(여·30)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새벽 4시20분께 여수시 학동 사거리 도로에서 강모(49)씨가 불던 투싼 승용차와 서모(37)씨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모(여·66)씨가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울증 30대 간호사 마취제 주사해 자살

지난 17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에 사는 김모(여·32)씨가 팔에 주사기를 꽂고 숨겨있는 것을 여동생(30)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의 옆에서는 빈마취제 앰플 4개가 함께 발견됐다.

동생은 경찰에서 "언니가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 가봤는데 숨겨 있었다"고 진술했다. 나주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최근 남편과 헤어진 뒤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침수·교통사고 ... 호우피해 속출

7월 세 번째 주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선 주택 및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가 속출했다.

여수에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288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덕충동과 광림동, 삼일동, 화양면 일원인 도로 20곳이 유실돼 2억1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17일 새벽 3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백련마을 김모(여·53)씨의 단독주택에 토사 20여이 밀려와

김씨 등 2명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이날 새벽 1시58분께 순천시 행곡동 봉화터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장모(여·30)씨 등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새벽 4시20분께 여수시 학동 사거리 도로에서 강모(49)씨가 불던 투싼 승용차와 서모(37)씨의 그레이스 승합차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이모(여·66)씨가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거운동원 폭행·현수막 훼손 50대 실형

광주지법 징역6월 선고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6·2 지방선거 출마자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5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18일 구청장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목발로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고, 톱등으로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6시25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당시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원 김모(여·52)씨 등 4명을 자신이 쫓고 다니던 목발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황 전 청장 재임 시절 "사무실 앞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같은 달 16일 황 전 후보의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하기도 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과태료 안냈다고 실명·주소·주민번호를...

동부경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

광주의 한 경찰서가 속도위반 등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과태료 미납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 등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 기한 20여일이 지나도록 게시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1일 청사 정문 공고문 게시판에 '과태료 부과 공고'와 '과태료 체납 관련 압류 공고'라는 제목으로 과태료 미납자 및 부과 대상자 170여명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게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게시물은 공고 전 두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한 과태료 고지대상 중 미납자와 주소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명단을 국제기본법 등에 따라 공고한

것이다.

하지만 공개된 명단에는 과태료 미납자 등의 실명과 함께 번지를 제외한 주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숫자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어 생활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이 공고물은 공고기간이 지난 달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이지만, 20여일이 지난 이달 18일까지도 버젓이 부착돼 있어 경찰의 개인정보 관리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모(55·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개인적인 일로 경찰서를 찾았다가 아는 사람의 이름이 공개돼 있어 깜

짝 놀랐다"며 "잔혹한 살인범이나 강력범죄도 아닌데 과태료 4만원을 내지 않았다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과 국제기본법 등에 따라 과태료 미납 사실을 당사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공시했다"며 "경찰청의 전자 시스템에 따라 번지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양수현기자 yang@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

경찰청은 부산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정신병력이 있던 남편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정 단속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와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업소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 또는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단속 기간에 외국인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용해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중개업체와 관련된 범죄 정보도 수집할 계획이다.

/연남뉴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영화와 함께!!

상무점 **이남점**

1관 포화속으로 (12세)	1관 포화속으로 (12세)
2관 뱀벌의 꿈/아더와미노이2(연세)	2관 나이트&데이 (15세)
3관 이클립스 (12세)	3관 나이트&데이 (15세)
4관 이클립스 (12세)	4관 슈렉 포에버(3D 디빙/디지컬) (연세)
5관 슈렉 포에버(디빙)/방자권(18세)	5관 슈렉 포에버(디빙) (연세)
6관 킬러 인사이드 미 (18세)	6관 방자권(18세)
7관 이끼 (18세)	7관 뱀벌의꿈 (18세)
8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8관 이클립스 (12세)
9관 나이트&데이 (15세)	9관 이클립스 (12세)
10관 이끼 (18세)	10관 킬러인사이드미 (18세)

항동시청·영화시청! 매일 실상상영 / 호남최대주차장 / www.joycbc.com

3D디지컬 상영! 상무점, 이남점 동시개봉!!

www.megabox.co.kr

1관 이끼(18세)	최고급관
2관 이끼(18세)	
3관 나이트&데이 (15세)	
4관 파괴된 사나이 (18세)	
5관 슈렉 포에버(3D디지컬)(연세)/이끼(18세)	
6관 이클립스 (12세)	
7관 이클립스 (12세)	
8관 포화속으로 (12세)	
9관 이클립스 (12세)	
10관 이끼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www.cinus.co.kr

1관 이클립스(12세)/파괴된사나이(18세)
2관 포화속으로(12세)
3관 이끼(18세)
4관 슈렉 포에버(3D 디빙/자막) (연세)
5관 나이트&데이 (15세)
6관 이클립스(12세)/킬러인사이드미(18세)
7관 이끼(18세)

색깔있는 영화상영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